

러시아어 연음화 현상 분석

이 성 민

(한국의국어대학교)

Lee, Sungmin. 2004. An Analysis of Russian Palatalization. *Linguistic Research* 20, 17-37. This paper analyses the palatalization phenomena in Russian by the Derivational Optimality Theory (Rubach 1977). Russian palatalization is phonologically productive phenomenon and it causes fronting of consonants or backing of vowels in according to its environment. In this paper, I accept the necessity of level division of Rubach (2000), but unlike his proposal, classify two levels in according to morphological characters. And then suggest that level I includes derivation and morpho-syntactic processes more than inflection belong to level II. I argue that the hierarchy of constraints should be Maintain Contrast (in level I), Ident-IO[back](in level II) \gg Ident-C_{-back}, PAL-i, *i \gg *i, Ident-C_{+back}. Moreover, I suggest the necessity of class division in according to affix. In other words, this paper shows a necessity of modification of Derivational Optimality Theory for Russian phonology with a strong possibility of it. (HUFS)

1. 서론

전설 모음이나 연자음 앞에서 자음이 연음화를 일으키는 구개음화 현상은 러시아어의 생산적인 음운 현상이다. 이러한 연음화 현상은 자음 앞에서는 많은 예외가 발생하지만¹ 전설 모음 앞에서는 일부 외래어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나타나며 특히 전설 고위 모음 /i/ 앞에서는 모든 자음들이 연음화를 일으킨다.² 전설 모음 앞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공시적 연음화 현상은

¹ 러시아어에서 자음군의 연음화 현상은 선행 자음의 조음 위치에 따라, 그리고 형태소 경계의 유·무에 따라 많은 예외가 발생한다. 즉 잇소리의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연음화가 발생하는 반면, 선행 자음이 입술소리나 연구개음, 또는 자음 /r/인 경우에는 연음화에 대해 저항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같은 잇소리 무리라 하더라도 형태소 내에서는 연자음 동화가 발생하는 반면, 형태소 경계를 넘어서는 많은 예외가 나타난다.

² 그러나 같은 전설 모음이라 하더라도 비교위 전설 모음 /e/의 경우는 예외를 보여주고 있다. 즉, tennis [tɛn'n'is] 'tennis', komp'juter [kamp'jutɛr] 'computer', buterbrod [buterbrod] 'sandwich'에서는 전설 모음 /e/ 앞에서 연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동

생성 음운론 이후 러시아어 음운론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분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최적성 이론의 발달 이후 러시아어 연음화 현상은 단계별 분석을 제안한 Rubach(1997)의 도출형 최적성 이론(Derivational Optimality Theory)을 통해 평설 자음 뒤에서의 모음의 후설화나 전설 모음 앞의 자음의 연음화가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자료 점검을 통해 그 나름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Rubach는 단어와 어구 단계에서의 연음화 현상만을 언급할 뿐 추가되는 접미사에 따라 연음화 환경에서 연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분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그 설명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모음 /i/를 독립적인 음소로 간주함으로써 러시아어 모음 음소 체계에 대한 또 다른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러시아어의 연음화 현상을 최적성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Rubach의 도출형 최적성 이론의 핵심인 단계별 분석의 타당성을 받아들여 연음화 현상을 도출형 최적성 이론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Rubach의 분석에서의 단계 구분과는 달리 형태·통사 범주에 의한 단계 분석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절에서는 러시아어의 연음화 현상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특히 선행 자음에 의한 후행 모음의 변화로 분석하는 Rubach의 연구와 그에 대립되는 Padgett(2001)의 연구를 살펴본다. Padgett은 음성 실험을 통하여 러시아어의 연음화 현상을 후행 모음에 의한 선행 자음의 전설화 경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인지적 변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음성적 실험 결과가 연음화 현상의 분석에 주요 제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절은 러시아어 접미사의 특성을 살펴본다. Pesetsky(1979)의 연구에서 시도된 것처럼 러시아어 접사는 동일한 음운 환경에서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구분은 음운 현상을 설명하고 단계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3절에서는 이러한 접사 분류를 기초로 단계별 최적성 이론 분석에서의 접사 분류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4절은 러시아어 연음화 현상을 분석한다. 특히 Rubach의 도출형 최적성 이론에서 분석되지 못하는 자료에 대해 새로운 단계 구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일한 결합을 보이는 tema [t'ema] 'topic', tekst [t'ekst] 'text', texnika [t'exn'ika] 'technic'에서는 선행 자음 /t/가 연음화를 일으킨다.

2. 러시아어의 위치적 연음화 현상과 선행 연구

러시아어에서는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전설 모음 앞이나 연자음 앞에서 선행 자음의 연음화 현상이 발생한다.

(1) a. 모음 /i/ 앞의 연음화

xvostik [xvos't'ik] 'teil(dim.)' cf. xvost [xvost]

brat'ja [brat'jə] 'brothers' cf. brat [brat]

b. 모음 /e/ 앞의 연음화

xvoste [xvos't'i] 'tail (loc.)', cf. xvost [xvost]

medved' [m'idv'ed'] 'bear'

c. 연자음 앞의 연음화

s čast'ju [š'č'as't'ju] 'with a part'

končit' [kan'čit'] 'end'

(1)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러시아어의 연음화 현상은 연모음이나 연음성 자음 앞에서 발생한다. (1a)의 예들은 고위 전설 모음 /i/ 앞에서 선행 자음이 연음화되는 절대적인 연음화 현상을 보여준다. (1b)의 예는 비고위 전설 모음 /e/ 앞에서 발생하는 연음화 현상으로 1절에서 설명된 것처럼 일부 외래어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음운 현상이다.³ 또한 (1c)의 예들은 연음성 자음 앞에서 선행 자음의 연음화가 발생하는 예들로서 선행 자음의 조음 위치에 따라 현대 러시아어에서는 많은 예외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음화 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자음과 모음 앞에서의 음운 현상을 함께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자음 앞에서의 많은 예외성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자음군에서의 연음화 현상에 대해서는 간단한 언급과 함께 많은 예외가 발생한다는 사실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 음운론적 측면에서의 연음화 현상은 모음 /i/와 /e/ 그리고 전이음 /j/ 앞의 환경으로만 제한되어 설명되고 있다.

³ 또한 /e/ 앞의 구개음화 현상은 화자의 특성에 의해서도 많은 변이형이 나타나는데, 주로 교육받은 사람일수록 원자음에 가깝게 발음하려는 경향이 강해 선행 자음의 연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러시아어 교유의 발음 현상으로 발음하여 연음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2) \quad C \rightarrow C' / \left\{ \begin{array}{l} \text{--- V} \\ [+front] \\ \text{--- /j/} \end{array} \right.$$

초기 생성 음운론의 모델에 의한 연음화 규칙인 (2)는 러시아어의 평설 자음이 전설 모음이나 전이음 /j/ 앞에서 연음화되는 현상을 간단히 제시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음운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전설 모음 앞에서 연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 (3) a. *iskat'* 'look for' perfective forms: *raz + yskat'* [zi], *ob + yskat'* [bi], *ot + yskat'* [si], *pod + yskat'* [di], *iz + yskat'* [zi].
igrat' 'play' perfective forms: *s + ygrat'* [si], *raz + ygrat'* [zi], *ot + ygrats'a* [ti], *ob + ygrat'* [bi], *pod + ygrat'* [di].
- b. *ot instituta* [ti] 'from the institute', *k invalidu* [ki] 'to the invalid', *pod izboj* [di] 'under the room', *s igloj* [si] 'with the needle'.
- c. *brat id'ot* [bratid'ot] 'brother is going', *mal'čik igrajet* [ki] 'a boy is playing', *dom iskustva* [mi] 'art gallery', *golos Ivana* [si] 'Ivan's voice'. (Rubach 2000, 43)⁴

일반적으로 러시아어에서는 연모음을 선행하는 경자음이 연음화를 일으키는 반면, (3)의 예들은 그 반대되는 현상으로 경자음을 후행하는 연모음이 경음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여준다. (3a)의 예는 어근이 연모음 /i/로 시작하는 동사형에 접두사 c-가 부가되어 형성된 완료상 동사들로서 그 첫 모음은 /i/에서 /i/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3b)는 전치사와 명사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연모음의 경음화 현상이며 (3c)는 어구에서의 연모음의 경음화의 예들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선행 자음의 연음화와 (3)의 예들과 같은 후행 모음의 경음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Rubach(2000)는 도출형 최적성 이론의 체계 내에서 러시아어 연음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Rubach에 의하면 이러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단어 단계와 어구 단계라는 단계의 차이와 그에 따른 제약 서열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Rubach는 다음과 같은 기존의 충실성 제약과 유포성 제약을 사용하여 연음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⁴ Rubach(2000)에서는 자음의 경음성을 보이기 위해 [z']와 같이 윗첨자 v를 사용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경자음에 특별한 부호를 부가하지 않는다.

- (4) a. Ident-C_{+back}: 입력형 자음의 [+back] 자질은 출력형 자음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 b. Ident-C_{-back}: 입력형 자음의 [-back] 자질은 출력형 자음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 c. Ident-V_{+back}: 입력형 모음의 [+back] 자질은 출력형 모음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 d. *i: 고위 후설 비원순모음은 나타날 수 없다.
- e. *i: 고위 전설 비원순모음은 나타날 수 없다.⁵

Rubach는 이러한 제약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제약을 새로 가정하여 가장 상위 서열로 자리매김한다.

- (5) Pal-i: 자음과 그를 후행하는 고위 모음은 [+back] 자질이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들은 다음과 같은 서열로 적용된다.

- (6) Ident-C_{-back}, Pal-i, Ident-V_{+back}, *i ≫ *i, Ident-C_{+back}

(6)의 서열에 의해 러시아어에서 연모음 앞의 자음의 연음화 현상이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최상위 제약인 Ident-C_{-back}는 입력형의 연자음에는 적용되는 반면, 입력형이 경자음일 때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동일한 서열의 제약인 Ident-V_{+back}는 만일 입력형 모음이 /i/라면 출력형에서도 유지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같은 서열의 *i 제약에 의해 입력형 모음이 /i/일 경우 서로 상쇄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Pal-i 제약이 모음 /i/ 앞에서 연음화를 일으키도록 작용하므로 선행 자음이 경자음이거나 연자음일 때, 그리고 후행 모음이 경모음이나 연모음일 때 모두 선행 자음의 연음화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 (7) 경자음 + 연모음(xvostik [xvos't'ik] - cf. xvost [xvost])

| /t + i/ | Ident-C [-back] | Pal-i | Ident-V [-back] | *i | *i | Ident-C [+back] |
|-----------|--------------------|-------|--------------------|----|----|--------------------|
| a. t' + i | | | | | * | * |
| b. t + i | | | | *! | | |
| c. t + i | | *! | | | * | |

(Rubach 2000, 46)

⁵ 이 외에 Rubach는 고위 전설 원순모음을 금지하는 *u 제약을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xvostik [xvos't'ik]과 같이 연모음 앞에서 경자음이 연음화되는 예는 (7)과 같이 분석된다. 입력형의 자음은 경자음으로 [+back] 자질을 가지고 있어 Ident-C_[-back] 제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입력형 모음은 [-back]인 전설 모음이므로 Ident-V_[+back] 제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back] 자질이 동일하여 Pal-i 제약을 위반하지 않고 *i를 위반하지 않는 (7a)의 후보형이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즉, 연모음 앞에서 경자음의 연음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연자음과 연모음이 결합하는 put' iz Moskvy 'a journey from Moscow'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8) 연자음 + 연모음 (put' iz Moskvy [t'i])

| /t' + i/ | Ident-C _[-back] | Pal-i | Ident-V _[+back] | *i | *j | Ident-C _[+back] |
|-------------|----------------------------|-------|----------------------------|----|----|----------------------------|
| ☞ a. t' + i | | | | | * | |
| b. t + i | *! | | | * | | |
| c. t' + i | | | | *! | | |

(Rubach 2000, 47)

연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put' 'a journey'와 모음 /i/로 시작하는 전치사 iz 'from'의 결합에서는 자음의 연자음성과 모음의 연자음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첫 번째 후보형은 입력형 자음의 [-back] 자질을 유지하고 있고, 자음과 모음의 [back] 자질이 동일하므로 Pal-i 제약도 위반하지 않으며 입력형 모음이 [-back]인 /i/이므로 상위 제약을 하나도 위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nosy [nosi] 'nose (nom.pl.)'(cf. nos [nos] 'nose (nom.sg.)')에서와 같이 경자음과 경모음의 결합은 경자음과 경모음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gosti [gost'i] 'guest (nom.pl.)'(cf. gost' 'guest (nom.sg.)')에서와 같이 연자음과 경모음의 결합은 다음의 분석 과정을 통해 후행 모음이 전설화를 일으킨다.

(9) 연자음 + 경모음 (gosti [t'i] 'guest (nom.pl.)' - cf. gost' 'guest (nom.sg.)')

| /t' + i/ | Ident-C _[-back] | Pal-i | Ident-V _[+back] | *i | *j | Ident-C _[+back] |
|-------------|----------------------------|-------|----------------------------|----|----|----------------------------|
| ☞ a. t' + i | | | * | | * | |
| b. t + i | * | | | *! | | |
| c. t' + i | | * | | *! | | |

(Rubach 2000, 47)

⁶ xvostik [xvos't'ik]에서 자음 /s/가 연음화되는 것은 후행 자음 /t/의 영향이다.

(9)의 첫 번째 후보형은 입력형의 [+back] 모음이 [-back]으로 변화였으므로 Ident-V_[+back] 제약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후보형은 입력형 자음의 [-back] 자질이 [+back]으로 변화였으므로 Ident-C_[-back] 제약을, 모음 /i/가 나타나므로 *i 제약을 위반하여 상위 제약을 두 번 위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후보 역시 자음과 모음의 [back] 자질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Pal-i 제약을, 모음 /i/가 나타나므로 *i 제약을 위반하여 상위 제약을 두 번 위반하므로 상위 제약을 최소한으로 위반한 첫 번째 후보가 최적형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Rubach는 러시아어의 모음 앞 자음의 연음화 현상을 분석하며 단어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제약과 그 서열에 의해 분석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서열은 앞의 (3)에서 제시된 경자음과 연모음의 결합에서 모음의 후설화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단어 단계에서는 경자음과 연모음의 결합이 (7)에서처럼 자음의 연음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Rubach는 (3)과 같은 예는 어구 단계에 속하며 (7-9)에 제시된 단어 단계 이후의 어구 단계가 필요하고, 단계가 달라짐에 따라 제약들의 서열도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Rubach에 의한 2단계에서의 제약 서열은 다음과 같다.

(10) Ident-C_[+back], Ident-C_[-back], Pal-i, Ident-V_[+back], *i ≫ *i

즉 2단계에서는 하위 제약이었던 Ident-C_[-back] 제약이 상승함으로써 제약의 재서열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서열에 의해 (3c)의 brat id'ot [bratid'ot] 'brother is going'의 결합에서와 같은 모음의 후설화가 설명된다.

(11) 경자음 + 연모음 brat id'ot [bratid'ot] 'brother is going'

| /t + i/ | Ident-C [+back] | Ident-C [-back] | Pal-i | Ident-V [+back] | *i | i |
|-----------|--------------------|--------------------|-------|--------------------|----|----|
| a. t + i | | | | | * | |
| b. t' + i | * | | | | | *! |
| c. t + i | | | * | | | *! |

(Rubach 2000, 48)

(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단계에서는 입력형의 경자음성이 유지되고 후행 모음이 경모음이 되는 첫 번째 후보형이 최적형이 된다. 입력형 자음이 연음화된 (11b)의 후보형은 자음의 [+back] 자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다음 제약 서열인 *i를 위반하여 탈락되기 때문이다. 또한 입력형의 자음과

모음이 그 [back] 자질을 유지하는 세 번째 후보형도 상위 제약인 Pal-i 과 하위 제약인 *i를 위반하여 탈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Rubach는 도출형 최적성 이론을 사용하여 단계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제약 서열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다양하게 나타나는 러시아어 연음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Rubach의 분석은 그 단계 설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Rubach는 접두사가 부가된 동사는 어구 단계에서, 명사와 전치사의 결합은 1단계에서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어 음운·형태론에서 전치사와 명사는 하나의 음운어로 기능하는 별개의 단어이다. 그러나 어근에 접두사가 부가된 형태는 그 자체가 단어일 뿐 단어 이상의 단위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전치사와 명사의 결합보다 더 상위의 단위로 간주한다는 것은 러시아어의 형태론적 사실에 모순되는 결과이다.

둘째, 러시아어에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접사의 모음이 선행 자음을 연음화시킬 수도 있고 모음의 [-back] 자질이 [+back]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 (12) a. 경자음 + 연모음 → 연자음 + 연모음: bogin'a 'goddess', gercogin'a 'duchess', grafin'a 'countess', monaxin'a 'religious'
- b. 연자음 + 연모음 → 연자음 + 연모음: kn'agin'a 'princess', geroin'a 'heroine'
- c. 경자음 + 연모음 → 경자음 + 경모음: rabin'a 'white slave', bari n'a 'mistress'
- d. 연자음 + 연모음 → 경자음 + 경모음: sudarin'a 'madam'(cf. sudar' 'sir'), gosudarin'a 'princess'(cf. gosudar' 'prince'), gusi n'a 'goose'(cf. gus' 'goose')

러시아어에 존재하는 이러한 사실들은 Rubach(2000)의 분석에서 제시된 단어 단계에서의 제약 서열을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 (13) a. rab + in + 'a →: rabin'a

| /b + i/ | Ident-C [-back] | Pal-i | Ident-V [+back] | *i | *i | Ident-C [+back] |
|--------------|--------------------|-------|--------------------|----|----|--------------------|
| ☐ a. b' + i | | | | | * | * |
| (☐) b. b + i | | | | *! | | |
| c. b + i | | *! | | | * | |

b. sudar' + in + 'a → sudarin'a

| /r' + i/ | Ident-C [-back] | Pal-i | Ident-V [+back] | *i | *i | Ident-C [+back] |
|--------------|--------------------|-------|--------------------|----|----|--------------------|
| ☐ a. r' + i | | | | | * | |
| (☐) b. r + i | *! | | | * | | |
| c. r + i | *! | | | | | |

(12c)에 대한 분석인 (13a)는 적격형인 두 번째 후보형이 아닌 첫 번째 후보가 최적형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잘못된 결과를 보여준다. 즉 상위 제약을 하나도 위반하지 않는 첫 번째 후보가 각각 *i 제약과 Pal-i 제약을 위반하는 두 번째, 세 번째 후보보다 최적의 형태로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3b)의 분석 역시 적격형인 두 번째 후보가 아닌 첫 번째 후보가 최적형으로 도출된다.

이처럼 러시아어에서는 어구 단계뿐 아니라 접미사가 부가되는 단어 단계에서도 위와 같이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 특히 부가되는 접사나 선행 자음의 특성에 따라 연음화 현상은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Padgett(2001)의 제안은 흥미롭다. Padgett은 음성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러시아어의 연음화는 음성적 대조를 최대화하기 위한 현상으로 기존의 분석에서 제시된 것처럼 연모음 앞에서의 경자음의 연음화, 즉 전설화가 아닌 연모음 앞에서의 경자음의 후설화라고 주장한다. 즉 자음과 후설 모음의 결합인 Ci가 실제로는 Cvi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설 모음 앞에서 평설 자음이 변별적 대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설성에 대조되는 후설의 위치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Padgett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분석이나 이에 대한 제약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Rubach(2000)의 분석에 대한 절대적인 비교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Padgett의 연구는 자음의 후설화라는 측면에서 자음의 전설화를 이야기하는 Rubach의 연구에는 대조되는 것이다. 또한 대조적 변별성을 강조하는 Padgett의 논지는 많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12)에 제시된 접사 /in/의 경우 (12a, b)와 같이 선행 자음이 연자음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선행 자음은 /g, k, x/와 같은 연구개음일 경우가 대부분이었고⁷, (12c, d)와 같이 모음의 후설화가 나타나

⁷ Grammatičeskij clovar' russkogo jazyka(A.A. Zalizn' ak 1977)과 Slovar' morfem russkogo jazyka(A. I. Kuznečova, T. F. Efremova 1986)을 통해 조사한 결과 접사 -in-앞에서 자음이 연자음으로 나타나는 예는 모두 14개였으며, 이 중 13개의 단어가 연구개음이었다. 하나의 예외는 순음 /t/였다. 또한 동일한 위치에서 자음이 경자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7개의 단어였으며 그 선행 자음은 각각 /b/, /s/, /t/와 /r/이었

는 경우 선행 자음은 전설 자음인 치음과 순음이었다. 대조적 변별성의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즉, 후설 자음과 전설 모음의 결합에서는 자음의 전설화가 발생해도 그 대조성은 유지된다. 그러나 전설 자음과 전설 모음의 결합에서는 그 대조적 변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음이나 모음의 후설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⁸ 따라서 이러한 대조적 변별성의 개념을 근거로 다음절에서는 러시아어 자음의 특성과 접사의 상호 관련성을 통해 이를 제약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3. 러시아어 자음의 특성과 어휘 음운론

러시아어 자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4) 러시아의 자음체계

| | labial | | dental | | post-alveolar | | palatal | velar | |
|-----------|--------|----------|---------|----------|----------------|--|---------|--------|----------|
| stop | p b | p' b' | t d | t' d' | | | | k g | k' g' |
| fricative | f v | f' v' | s z | s' z' | s (š) z (ž) | | | x | x' |
| affricate | | | c | | č | | | | |
| nasal | m | m' | n | n' | | | | | |
| lateral | | | l l' | | | | | | |
| rhotic | | | r | r' | | | | | |
| glide | | | | | | | j | | |

러시아어 자음 중 전설 자음으로 분류되는 치음은 자음군에서 연자음 동화를 가장 생산적으로 일으키는 부류이다.⁹ 반면 후설 자음인 연구개음 /g/

다. 즉 /b, s, t/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음의 전설성이 강한 경우였으며 선행 자음이 /r/인 3개의 단어 중 두 개의 단어가 연자음 /r'/로서 선행 자음의 전설성이 특징적이었다.

⁸ (12)와 같은 예를 설명하기 위한 Rubach(2000)의 방법은 (12a, b)의 접사 -in-과 (12c, d)의 접사 -in-을 별개로 구분하는 것이 될 것이다. Rubach(2000)의 분석에서는 모음 /y/에 독립적인 음소의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접사들을 별개의 접사로 간주할 근거는 불충분하다.

⁹ 그러나 같은 전설 자음이라도 순음은 자음군에서 연음화에 대해 저항적인데, 이는 연음화에 관련 있는 혀가 순음에서는 조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음 방법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k, x/는 자음군에서 연자음 동화에 가장 저항적이다. 자음군이 아닌 모음 앞의 위치에서는 일반적으로 모음의 연음성에 의해 자음의 연음성이 결정되지만, 앞의 (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음의 연음성에 관계없이 자음과 모음의 대조 관계가 분명히 나타나는 예들도 볼 수 있다.

음성학적으로 이러한 대조의 명료성을 분명히 하려는 현상과 그 결과 나타나는 음성적 실험을 음운 분석에 적용하는 예로 Flemming(199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Flemming은 영어 파열음의 유·무성 대조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VOT 자질값을 기본으로 대조의 명료성과 조음 노력의 최소화 제약을 적용하고 있다. 즉 대조의 명료성을 지향하는 결합은 언어 보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러시아어 연음화 현상에서도 다음과 같이 대조 관계를 유지하려는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15) Maintain contrast: 자음과 모음의 결합에서 상호 대조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¹⁰

이러한 조건에 의해 (12)에 나타난 후설 자음과 전설 모음, 전설 자음과 후설 모음의 결합은 설명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후설 자음은 전설 모음 앞에서 전설화를 일으켜도 그 조음적 특성상 전설 모음과의 대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지만, 전설 자음은 전설화가 아닌 모음의 후설화를 야기함으로써 그 조음적 대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3)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16) a. rab + in + 'a → [rabin'a]

| /b + i/ | Maintain Contrast | Ident-C _[-back] | Pal-i | *i |
|------------|-------------------|----------------------------|-------|----|
| a. b' + i | *! | | | |
| ☞ b. b + i | | | | * |
| c. b + i | *! | | * | |

b. sudar' + in + 'a → sudarin'a

| /r' + i/ | Maintain Contrast | Ident-C _[-back] | Pal-i | *i |
|------------|-------------------|----------------------------|-------|----|
| a. r' + i | *! | | | |
| ☞ b. r + i | | * | | * |
| c. r + i | *! | * | * | |

¹⁰ 물론 이러한 제약은 음성학적 실험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인 대조 관계에 대한 수치가 제시되어야 좀더 분명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어 각 분절음의 경·연음성에 대한 체계적인 음성학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좀더 정확한 정의는 다음 과제로 남겨놓는다.

즉 자음과 모음의 대조를 유지하라는 Maintain Contrast 제약을 최상위 제약으로 설정하면 (16a, b)에서 모두 첫 번째 후보와 세 번째 후보가 대조를 유지하지 못하여 탈락하므로 두 번째 후보가 최적형으로 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xvostik [xvost'ik]과 같은 러시아어의 예에서는 다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17)

| /t + i/ | Maintain Contrast | Ident-C _{-back} | Pal-i | *i |
|---------------|-------------------|----------------------------|-------|----|
| (☞) a. t' + i | *! | | | |
| ☞ b. t + i | | | | * |
| c. t + i | *! | | * | |

즉 대조의 명료성을 도입하지 않고 입력형과 출력형의 자음과 모음의 [back] 자질 유지와 자음과 모음간의 [back] 자질 일치, 그리고 모음 음소 /i/의 유표를 금지하는 유표성 제약에 의해 Rubach가 올바르게 분석한 앞 (7)의 예는 대조적 명료성에 대한 조건을 도입하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8), (9)와 같이 Rubach의 분석에서 적격형을 도출했던 다른 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어 접사의 특성을 구분할 필요가 생긴다. 러시아어 접사의 단계 구분은 Pesetsky(1979)에 의해 이루어져 러시아어 약화모음에 대한 어휘 음운론적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Pesetsky는 러시아어 파생 접사들의 형태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구분하여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였고, 그러한 접사 구분에 의해 러시아어 약화모음이 다중적으로 부가되는 예들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보여주었다.¹¹

¹¹ Pesetsky(1979)의 논문에서는 종(class)의 개념이 아닌 단계(level)의 개념을 사용하여 접사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접사 단계와 제약 적용 단계가 자칫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접사의 'level' 대신 'class'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Pesetsky는 러시아어 2종 접사는 의미적으로 투명하여 그 의미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반면 1종 접사는 의미적으로 불투명하여 또 다른 의미 해석방법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엄밀 순환 조건에 의해 2종 접사는 1종 접사 전에 부가될 수 없다. 그러나 Pesetsky는 러시아어 접사 구분의 기준이 되는 음운 규칙은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순환 규칙에서는 음운 규칙 적용의 예외성이 많이 나타나는데 반해 후순환 규칙에서는 음운 규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러시아어 접사 구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Pesetsky는 그의 연구에서 총 8개의 접사 단계를 구분하는데 그치고 있다.

| | |
|--|---|
| (18) 기저형 CYCLE 3: PAL NEO-LOWER YER-LOWER POST-CYCLE-YER-DEL other rules: | $[[[[\text{v} \text{ladel}] \text{Ec}] \text{Esk}] \text{ij}]^{12}$ č e ----- Ø vladel'českij 'of a proprietir' |
|--|---|

약화모음이 다중적으로 추가된 (18)과 같은 예는 기존의 표준 이론에서는 분석될 수 없다. 표준 이론에서는 Havlik의 법칙을 적용하여 오른쪽에서 첫 번째 모음은 탈락하고 두 번째 모음이 완전모음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Pesetsky는 다음과 같은 순환 규칙과 후순환 규칙을 가정하여 (18)과 같은 예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있다.

(19) a. 순환 규칙

i) Palatalization

$$\left(\begin{array}{l} k \rightarrow \check{c} \\ g \rightarrow \check{z} \\ x \rightarrow \check{c} \\ c \rightarrow \check{c} \end{array} \right) / \text{---} \left(\begin{array}{l} -\text{cons} \\ -\text{back} \end{array} \right) \quad (\text{Pesetsky 1979, 33})$$

ii) Neo-Lowering

$$\left(\begin{array}{l} + \text{lax} \\ + \text{hi} \\ - \text{back} \end{array} \right) \rightarrow [-\text{hi}] \left(\begin{array}{l} +\text{cons} \\ - \text{syll} \\ + \text{hi} \\ +\text{cor} \end{array} \right) \quad (\text{Pesetsky 1979, 33})$$

iii) Yer-Lowering

$$\left(\begin{array}{l} \text{cons} \\ + \text{syll} \\ + \text{hi} \\ -\text{tns} \end{array} \right) \rightarrow [- \text{hi}] / \text{---} \text{Co} \left(\begin{array}{l} - \text{cons} \\ + \text{syll} \\ + \text{hi} \\ - \text{tns} \end{array} \right) \quad (\text{Pesetsky 1979, 10})$$

b. 후순환규칙: Yer-Deletion

$$\left(\begin{array}{l} - \text{cons} \\ + \text{syll} \\ + \text{hi} \\ - \text{tns} \end{array} \right) \rightarrow \emptyset \quad (\text{Pesetsky 1979, 10})$$

¹² 대문자 E와 O는 각각 전설 약화모음과 후설 약화모음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Pesetsky의 논문에서는 전설 약화 모음은 i로, 후설 약화모음은 ŭ로 표기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E와 O의 부호를 사용한다.

(18)의 예는 (19)에 제시된 순환 규칙과 후순환 규칙이 적용되어 분석되고 있다. 우선 순환 규칙인 PAL이 적용되어 기저형의 자음 /c/를 /č/로 변화시키고, NEO-LOWERING 규칙에 의해 /č/뒤의 약화모음이 완전모음이 되며, 그 이후 후순환 규칙인 YER-DELETION에 의해 남아있는 약화모음이 탈락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이러한 Pesetsky의 분석은 러시아어에서 접사들이 순서대로 부가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순환 규칙이 올바른 순서로 적용되어야 적격형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러시아어의 접사는 그 단계가 구분되어야 하고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연음화 현상으로 돌아가 앞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16)과 (17)의 분석에서는 접미사 /-in'/와 /-ik/이 부가된 명사형에 동일한 제약 서열을 적용하면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들 접미사는 연음화라는 음운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접미사는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하는 접미사로 가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Pesetsky(1979)에 의해 제시된 접사 분류 기준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Pesetsky가 제시한 접사 분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접미사 뒤에 부가되는 접미사의 단계이다. 즉 1종 접사 뒤에서는 1종 접사와 2종 접사가 모두 부가될 수 있지만 2종 접사의 뒤에서는 2종 접사만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미사 /-in'/와 /-ik/의 접사 부가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접미사 /-ik/ 뒤에서는 Pesetsky의 접사 분류에서 2종 형용사 파생 접미사로 부가되는 Esk-가 부가될 수 있는 반면, 명사 형성 접미사 /-in'/으로 끝나는 19개의 명사들은 그 형용사 파생형이 사전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접사들이 서로 다른 부류에 속한다는 가정 하에 접미사 /-ik/을 1종 접미사로, /-in'/을 2종 접미사로 구분하고 2종 접미사는 (15)에 제시된 대조 명시성에 대해 민감한 반면, 1종 접미사는 대조 명시성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15)의 대조 명시성 제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면 앞에서 제시된 (17)의 분석은 대조 명시성에 대한 제약이 적용되지 않고 적절한 최적형을 도출할 수 있다.

(20) Maintain contrast: 2종 접사 부가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상호 대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17)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21) xvostik [t'i]

| /t + i/ | Maintain Contrast | Ident-C [-back] | Pal-i | *j | *j | Ident-C [+back] |
|-------------|-------------------|-----------------|-------|----|----|-----------------|
| ☞ a. t' + i | N/A | | | | * | * |
| b. t + i | N/A | | | *! | | |
| c. t + i | N/A | | *! | | * | |

이처럼 러시아어의 접사는 그 접사에 따라 선행 자음의 연음화가 발생하기도 하고 후행 모음의 후설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러시아어에는 연음성/경음성에 의한 이형태소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러시아어 접사에 대한 명확한 단계 구분 기준이 설정되면 다양한 음운 현상과 함께 이형태소의 문제와 같은 형태론의 문제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Pesetsky(1979)의 지적처럼 러시아어 음운론에서는 접사의 단계 구분 기준이 될 수 있는 음운 현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러시아어는 파생이 발달한 언어이므로 이러한 연구는 러시아어의 다양한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도출형 최적성 이론에서의 단계구분과 연음화 현상분석

1장에서 개요된 Rubach의 분석에 의하면 러시아어의 연음화 현상은 단어 단계와 단어 이상의 단계, 즉 어구 단계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제약 서열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Rubach의 분석에서는 순수한 형태·통사론적 의미에서의 단어나 어구 차원이 아니라 그 개념이 다소 확대되어 적용된다.

(22) a. 1단계: 단어 단계

- i) 접미사 파생: xvostik (xvost + ik) 'teil(dim.)'
- ii) 굴절: gosti (gost' + i) 'guest'
- iii) 단일어 + 단일어 : put' iz Moskvyy [t'i] 'a journey from Moscow'

b. 2단계: 어구 단계

- i) 접두사 파생: sygrat' [si] 'to play(perf.)'
- ii) 전치사 + 명사: ot institute [ti] 'from the institute'
- iii) 단일어 + 단일어: brat id'ot [ti] 'brother is going'

그러나 이러한 단계 분류는 그 단계 설정의 애매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는다. 동일한 단일어와 단일어의 결합이 단어 단계에도(22a-iii), 어구 단계에도(22b-iii) 속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위 (22)에 제시된 예에서 각 단어들간의 의미적 연관성은 (22b-iii)이 더 큰 것처럼 여겨진다. (22b-iii)의 결합 'brat id'ot'는 주어와 술어의 관계로 하나의 통합소로 간주될 수 있는 반면, (22a-iii)의 결합 'put' iz Moskvj'에서 전치사 iz는 선행하는 명사 put' 'journey'가 아니라 후행하는 명사 Moskvj와 의미적 관련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인 어결합 (22a-iii)의 단계가 접두사 파생어인 (22b-i)의 단계보다 선행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단계 설정 기준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가정할 수 있다.

- (23) 1단계: 파생 단계
- 2단계: 굴절과 어구 단계

또한 이러한 단계 구분과 함께 3절에서 제시된 것처럼 접미사도 연음화라는 음운현상에 대해 중립적인 접미사와 민감한 접미사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대조 명료성이라는 제약의 작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단계 구분으로 러시아어 연음화 현상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4) 접두사 부가 파생어: sygrat' [si] 'to play(perf.)'

| /s + i/ | Maintain Contrast | Ident-C _[-back] | Pal-i | *i |
|-----------|-------------------|----------------------------|-------|----|
| a. s' + i | *! | * | | |
| b. s + i | | | | * |
| c. s + i | *! | | * | |

접미사의 특성에 따른 Maintain Contrast 제약의 적용 여부는 앞 절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접두사는 그 특성상 파생 내에서 접미사가 모두 부가된 이후 부가되는 접사이므로 2종 접사로 분류되는 접사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종 접미사가 Maintain Contrast 제약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접두사 부가 동사형도 그 조음 위치 대조를 유지하라는 제약에 의해 어근 모음이 후설화되는 두 번째 후보형이 최적형으로 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단어 파생 단계에 속하는 1단계는 다음과 같은 제약 서열을 적용시키면 올바른 출력형을 도출할 수 있다.

- (25) Maintain Contrast ≫ Ident-C_[-back], Pal-i, Ident-V_[+back], *i ≫ *i, Ident-C_[+back]¹³

1종 접사의 경우는 최상위 제약인 Maintain Contrast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그 다음 서열 제약들에 의해 최적형이 결정된다. 그러나 2종 접미사와 접두사의 경우는 최상위 제약인 Maintain Contrast 조건의 적용을 받게 되어 최적형이 결정되는 것이다.

2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굴절과 어구 단계에서의 연음화 현상은 1단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22)의 예 gosti [t'i]나 put' iz Moskvj [t'i], ot institute [ti], brat id'ot [ti]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행 자음의 경·연음성이 후행 모음의 후설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입력형 자음의 경·연음성을 출력형에서도 유지하라는 동일성 제약을 최상위 제약으로 설정하면 이러한 예들을 적절히 분석할 수 있다.

(26) Ident-IO[back] : 입력형 자음의 [back] 자질은 출력형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을 적용하여 단어의 굴절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7) a. gosti [t'i]¹³

b. instituty [ti]

¹³ Rubach(2000)의 분석은 모음 /i/를 독립적인 음소로 간주하므로 기저적으로 [-back] 모음인 /i/와 [+back] 모음인 /i/가 존재한다. 따라서 Rubach의 분석에서는 Ident-V_[+back] 제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저적으로 [-back] 모음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므로 Ident-V_[+back] 제약은 사용되지 않는다.

¹⁴ 복수 주격 어미 /i/의 설정은 러시아어에서 모음 음소 /i/를 독립적인 음소로 간주하는지, 모음 /i/의 변이음으로 간주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Rubach(2000)에서는 모음 /i/를 독립적인 음소로 간주하여 복수 주격 어미 기저형을 /i/로 상정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어는 기본적으로 5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고 모음 /i/는 모음 /i/의 변이음인 것으로 간주한다.

(27a)와 같이 연자음 뒤에서는 모음 /i/로 나타나고, 경자음 뒤에서는 모음 /i/로 나타나는 명사 복수 주격형은 위와 같이 동일성 제약에 의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27a)에서는 최상위 제약인 Ident-IO[back]에 의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두 번째, 세 번째 후보가 탈락하게 된다. 입력형 자음의 연음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입력형의 자음이 경자음인 (27b)의 분석에서는 우선 입력형의 [+back] 자질을 유지하지 않는 첫 번째 후보형이 최상위 제약 Ident-IO[back]를 위반하여 탈락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후보형의 평가는 다음 서열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다음 제약에서도 두 번째 후보는 *i 제약을, 세 번째 후보는 Pal-i 제약을 위반하여 동일한 위반 정도를 가지므로 최적형이 결정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약 서열에서 두 번째 후보는 아무 제약도 위반하지 않는 반면, 세 번째 후보는 *i 제약을 위반하여 탈락하게 되므로 두 번째 후보형이 최적형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어구 단계에서의 연음화 현상도 동일하게 분석될 수 있다.

(28) 전치사 + 명사: ot institute [ti]

| /t + i/ | Ident-IO [back] | Ident-C [-back] | Pal-i | *i | *j | Ident-C [+back] |
|------------|--------------------|--------------------|-------|----|----|--------------------|
| a. t' + i | *! | | | | * | * |
| ☞ b. t + i | | | | * | | |
| c. t + i | | | * | | *! | |

입력형인 명사의 첫 모음 /i/는 선행 자음의 영향을 받아 경모음으로 발음된다. 이것은 어구 단계에서 Ident-IO[back] 제약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27b)의 분석에서와 같이 첫 번째 후보형은 최상위 제약을 위반하여 탈락하고 세 번째 후보는 세 번째 제약 서열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명사 + 전치사의 결합이나 단일어 + 단일어의 결합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다.

(29) a. 명사 + 전치사: put' iz Moskvj [t'i]

| /t + i/ | Ident-IO [back] | Ident-C [-back] | Pal-i | *i | *j | Ident-C [+back] |
|-------------|--------------------|--------------------|-------|----|----|--------------------|
| ☞ a. t' + i | | | | | * | |
| b. t + i | *! | * | | * | | |
| c. t + i | *! | * | * | | * | |

b. 단일어 + 단일어: brat_id'ot [ti]

| /t + i/ | Ident-IO [back] | Ident-C [-back] | Pal-i | *i | *i | Ident-C [+back] |
|------------|--------------------|--------------------|-------|----|----|--------------------|
| a. t' + i | *! | | | | * | * |
| ☞ b. t + i | | | | * | | |
| c. t + i | | | * | | *! | |

즉 어구 단계에서는 최상위 제약인 Ident-IO[back]과 세 번째 제약 서열인 *i 제약이 최적형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연자음과 연모음의 결합에서는 최상위 제약 Ident-IO[back]에 의해 자음이 연음성이 유지되는 후보형이 최적형으로 선택될 수 있고, 경자음과 연모음의 결합에서는 어구 단계에서 모음 /i/가 유표되는 것을 금지하는 *i 제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최적형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러시아어 연음화 현상은 단계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제약들을 적용함으로써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다. 기존의 도출형 최적성 이론의 분석에서는 그 단계 구분에 대한 타당성이 애매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파생 단계를 1단계로, 굴절 이상의 단계를 2단계로 구분함으로써 단계 구분에 대한 기준을 좀더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러시아어 연음화 현상은 이러한 단계 구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제약 서열의 적용에 의해 올바르게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30) a. 1단계: 파생단계

Maintain Contrast >> Ident-C_[-back], Pal-i, *i >> *i, Ident-C_[+back]

b. 2단계: 굴절과 어구 단계

Ident-IO[back] >> Ident-C_[-back], Pal-i, *i >> *i, Ident-C_[+back]

5. 결론

본 논문은 러시아어에서 나타나는 연음화 현상에 대한 도출형 최적성 이론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러시아어의 연음화 현상은 전설 모음, 특히 고위 전설 모음 /i/ 앞에서는 생산적으로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며, 그 환경에 따라 선행 자음이 전설화, 즉 연음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후행 모음이 후설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연음화 현상에 대한 표준 이론은 일반적으로 모음 음소 /i/ 앞에서 선행 자음이 연음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

석은 자음의 전설화가 아닌 모음의 후설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제약 적용의 단계 구분과 단계에 따른 제약의 재서열화를 주장하는 Rubach(2000)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러시아어 연음화 현상을 도출형 최적성 이론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Rubach의 연구는 기존의 도출형 최적성 이론에서 지적되어 온 단계 설정 기준의 애매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접사가 부가될 때 서로 다른 결과의 연음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다.

접사의 구분이 필요하고 그 부류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단계 유순론(Allen 1978)은 파생이 발달한 러시아어에서도 Pesetsky(1979)에 의해 그 적용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Pesetsky에 의해 분류된 러시아어 접사들은 동일한 음운 규칙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접사들은 그 특성별로 '대조성 유지'라는 조건에 민감할 수도, 중립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즉, 2종 접사들은 '대조성 유지' 조건에 충실하여 선행 자음과 후행 모음의 조음 위치적 대조성을 나타내는 반면, 1종 접사들은 그 조건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Rubach의 단계 설정의 애매함과 달리 파생과 굴절이라는 형태적 특성에 의해 단계를 구분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접두사화를 포함한 모든 파생을 포함하고, 2단계에서는 어구와 같은 굴절 이상의 단계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Maintain Contrast을, 2단계에서는 Ident-IO[aback] 제약을 최상위 제약을 설정함으로써 다양하게 나타나는 러시아어 연음화 현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러시아어의 경우 파생이 발달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접사들의 구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음성적 대조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음성 실험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가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음성적·형태적 정보를 이용한 연구는 기존의 이론들보다 더 체계적으로 언어현상을 분석할 수 있고, 보다 객관적인 실험과 자료 검증을 통해 도출형 최적성 이론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단계 구분에 대한 좀더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안상철. 2003. 최적성 이론의 언어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Allen, M. R. 1978. *Morphological Investigations*.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Avanesov, R. I. 1972. *Russkoe literaturnoe proiznošenie*. Moscow. Prosveščenie.
- Flemming E. 1996. Evidence for constraints on contrast: the dispersion theory of contrast. *UCLA Working Papers in Phonology* 1: 86-106.
- Halle, M. 1959. *The Sound Pattern of Russian*. Mouton. The Hague.
- Kuznecova A. I., T. F. Efremova. 1986. *Slovar' Morfem Russkogo Jazyka*. Moscow, Russkij Jazyk.
- Padgett J. 2001. Contrast dispersion and Russian palatalization. *The Role of Speech Perception Phenomena in Phonology*. E. V. Hume and K. Johnson(ed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187-218.
- Padgett J. 2003. The Emergence of contrastive palatalization in Russian. *Optimality Theory and Language Change*. D. Eric Holt(ed.).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307-335.
- Pesetsky P. 1979. Russian morphology and Lexical Theory. Ms. MIT.
- Rubach J. 1997. Extrasyllabic Consonants in Polish: Derivational Optimality Theory, I. Roca(ed.) *Derivations and Constraints in Phonology*. Oxford, Clarendon Press: 551-581.
- Rubach J. 2000. Backness switch in Russian. *Phonology* 17: 39, 64.
- Zalizn'ak A. A. 1977. *Grammatičeskij Slovar' Russkogo Jazyka*. Moscow, Russkij Jazyk.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130-791
 E-mail: lsmlsy@hanmail.net

접수일자: 2004. 01. 16.
 게재일자: 2004. 02. 16.